

 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	2021. 7. 9. / (총2매)			
배 포 일				
보육기반과	과 장	이승현	전 화	044-202-3580
	담당자	이용희		044-202-3581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

-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-

- 외부인 출입, 특별활동·외부활동, 집단행사·집합교육 금지 -

- 7.12.(월) 0시부터 수도권 지역(서울·경기·인천)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,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.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,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.

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>

	사회적 거리두기 2~3단계	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
휴원 여부	정상 운영 *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휴원 가능	휴원
운영	· 긴급보육 실시, 가정돌봄 권고 · 교사 정상 출근	·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·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
특별활동 외부활동	차제	금지
집단행사 집합교육	취소 또는 연기 권고	취소 또는 연기
외부인 출입	차제	금지 *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

- 먼저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휴원하고,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.
 -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,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,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.
 - * 가정돌봄 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돌봄 콘텐츠는 “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(<http://central.childcare.go.kr>) > 공지사항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
 -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,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.
 -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* 외에는 금지된다.
 - * 원내 필수 장비 수리,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
 - 그 외 특별활동, 외부활동,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.
- 7.12.(월)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“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어,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,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.”라고 하면서,
- “향후 2주 동안,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분들께서는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,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,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.”라고 밝혔다.